

## 추도사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큰스님!

비구니 스님들의 큰 어른이시며 사부대중의 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에 드시니 세간은 일시에 어둠에 싸이고 중생들은 큰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대중들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시며 자유인으로 패기 있고 싱그럽게 살라고 하시던 그 사자후를 이제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세수 스물 셋에 한암 스님의 문하에서 출가의 뜻을 굳게 하였지만 생에 대한 큰 의문을 품은 것은 이미 열 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60여년 동안 스님께서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경지를 수없이 열어 보이셨습니다. 전국 각지의 산야에서 산천초목은 물론 한 방울의 물과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모두 스승 아닌 것이 없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니 걸음걸음이 모두 만행(萬行)이요, 밭길 닿는 곳마다 만행화(萬行華)를 피워 내어 중생의 삶을 장엄하셨습니다. 오랜 산중 수행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진리의 가르침에 인연 닿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마침내 세간으로 돌아와 교화의 손길을 펼치시니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이어져 부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한마음의 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대행 큰스님!

스님께서는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안양에 한마음선원을 건립한 이래 전국에 여러 지원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포교에도 선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는 물론 한글 뜻풀이 경전의 보급,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 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최초, 최고라는 수많은 업적을 이룩하며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흥포 뿐 만 아니라 교계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시며 그 불사를 원만 회향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비구니 회관, 중앙승가대학교, 팔만대장경 전산화 등 스님 일생에 남긴 대작불사의 공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여전할 것입니다. 스님의 원력으로 인해 불교는 더욱 대중화되었고 계층포교와 매체포교는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큰스님의 이와 같은 큰 행원(大行願)은 ‘다함이 없으니,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신 보현행원품의 말씀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으니 큰스님의 삶이야말로 보현보살의 현신이였음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같이 걸어가자고 하셨던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큰스님! 마음이 하나일 때 헤어짐도 없고,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생이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아픔도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스님을 여의는 슬픔이 이리도 큰 것은 부족한 중생의 마음일뿐이요, 스님과 다르지 않은 한마음이기에 싱그럽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신 것처럼 대자유인이 되어 큰 원력을 계승하여 나갈 것입니다.

대지를 사르는 거대한 들불도 그 시작은 작은 불씨인 것처럼, 한 점의 불씨로 만가지 꽃을 피우신 대행 큰스님! 다함이 없는 보현보살의 큰 행원을 다시 펼치기 위해 길없는 길을 따라 발 없는 발로 한시 바빠 돌아오소서.

불기2556(2012)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